

승천을 읽

6/10 월요일

아침의 누림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벧전 2:7

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벧후 1:17

17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계 21:1, 3, 23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1:5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계 19:16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행 5:31

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람-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분배)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구주의 승천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임을 보아야 한다. 이 취임식을 위해 창조로 시작하여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로 계속되는 긴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주와 피조물과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사람-구주가 포함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취임하셨다. 객관적인 방면에서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히 2:9),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으며(12:2),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6, 628-6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승천 안에서 사람-구주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 히브리서 2 장 9 절에서 영광과 존귀는 관으로 여겨진다.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귀중함이다(벧전 2:7). 여기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위엄이 그분의 지위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벧후 1:17).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분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시고 존귀한 지위를 지니신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존귀이다. ... 이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서 쓰신 관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 히브리서 12 장 2 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 즉 그분의 오른편에 또 다른 보좌가 있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보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만 있음을 본다. 3 장 21 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고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 22 장 1 절은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라고 말한다. 3 절은 이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라고 말한다. 22 장 1 절과 3 절은 보좌들,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보좌와 어린양을 위한 또 다른 보좌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를 언급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양 모두를 위한 하나의 보좌이다.

요한계시록 21 장 23 절은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등이신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 비추심으로써,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을 밝게 하시는 것을 본다.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등이시고, 하나님은 등 안에 있는 빛이시다. 빛은 등 안에 있기 때문에 등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빛이 등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 하늘에 있는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사람-구주 안에 계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구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에 신성한 삼일성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6, 631-6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6

6/11 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36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 1:9

9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엡 1:20-21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엡 2:6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눅 2:11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마 16:16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20:28

28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자,

행 10:36

3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행 2:36, 10:36).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주님이셨다(눅 1:43, 요 11:21, 20:28). 그러나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다. 사도행전 10 장 36 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가리킨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이 땅의 온갖 다양한 종족들과 민족들의 주님이시다.

승천 이전에도 그분은 주님이셨지만, 공식적으로 이 직위에 취임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칭호들 중 하나는 주님(히. 아도나이)이다. 아도나이는 주인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아도나이이셨다. 그 후 그분은 사람, 곧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주님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야 주님의 직위에 취임하셨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님으로 취임하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 권, 그리스도, 메시지 31, 162-1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뿐 아니라 천사들 및 천년왕국 안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2 장 36 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히 1:9)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 승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으셨다(행 2:36). ...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이셨다. 더 나아가 인성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보냄 받으시고 기름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다(눅 2:11, 마 1:16, 요 1:41, 마 16:16). 그런 다음 그분은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으셨다(눅 4:18).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하얏아 계신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 권, 그리스도, 메시지 31, 163-164 쪽)

권위는 취임을 통해 나온다. 한 사람이 어떤 직위에 취임했다면, 그는 그 직무에 대해 권위를

갖는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뿐 아니라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음을 보아야 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위에 거하신다. 그분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며, 권위로서 우리 위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다.

주님을 접촉할 때 사람-구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그분을 접촉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직무를 알게 될 때면 그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사람 구주의 신분과 직무를 안다면 그것은 그분을 대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7, 635, 6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 권, 그리스도, 메시지 31

6/12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1:19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 1:18, 2:12-13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마 28:18

1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주에서 유일한 행정관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뜻이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로 취임하셨다. 이 모든 항목들이 객관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와 주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어떤 전달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 에베소서 1 장 22 절에 나오는 ‘교회에게’라는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오는 전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8, 641-6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교회에게 전달하고 계신다. 즉 교회에게 전달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눈다. 이것은 에베소서 1 장 19 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우리를 향하여’라는 표현이 열쇠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 역시 전달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유죄판결 하고 그분께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일으키셨고, 그분을 하늘들에 앉히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셨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 장 22 절 하반절의 가장 좋은 번역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이다. 만일 바울이 에베소서 1 장의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만 말했다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교회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게’라는 중요한 표현을 추가했다. ... 머리가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전달을 받아야 한다. 전기 시설은 단 한 번에 건물 안에 설치될 수 있지만, 전기의 전달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하늘들에 앉히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큰 선물을 그분께 주셨다. 이제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함은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완전한 의미와

함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으로 지속적으로 넣어 주는 전달이다.

발전소에서 건물에 도달하는 전기의 전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대개 발전소에 있지 않다. 그 문제는 건물 즉 받는 쪽에 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발전소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신성한 전달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종종 교회편에 문제가 생긴다. 신성한 전기가 우리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좌절시키는 문제가 우리에게 빈번히 있을 수 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지로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이 전달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완전히 열고자 한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게 오는 신성한 전달을 통하여, 사람-구주의 승천은 분명히 우리와 관련이 있게 된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에베소서 2 장 6 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함께 앉혀졌다고 말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우리가 어떻게 에베소서 2 장 6 절 말씀처럼 하늘들에 앉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전기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집 안에서 흐르는 전기는 발전소에도 존재한다. 이것은 전기가 발전소에도 있고 동시에 우리의 집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전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 놀라운 사실이다. 하늘에 속한 발전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8, 642-643, 645-6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7-79

**6/13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골 1:18-19**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엡 3:19**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 2:9-10**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엡 3:8**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엡 4:10**

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는 신성한 전달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도록 하는 능력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인 영역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고 기꺼이 자신을 열기만 하면, 이러한 전달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8, 64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신성한 전달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매일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나는 내가 체험하는 이 전달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나를 패배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이 신성한 전달로 말미암아 빛과 생명 공급과 지탱하는 능력이 계속 내게 온다.

교회는 높이 올려지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고,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만물은 그분의 발아래 복종되었으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 네 단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에베소서 1 장 19 절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라는 표현과 22 절의 '교회에게'라는 표현이 이 전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하여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의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을 그분과 함께 누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승천 또한 우리 안에 있다.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지니시고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이러한 요점들을 들어 보지 못했다. 특히 그들에게는 신성한 전달에 관한 어떤 개념도 없다. ... 나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로부터 더 새롭고 더 깊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비우기를 간청한다.

신약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열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저의 전 존재를 비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총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총만에 이르도록 총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이것이 마땅히 교회의 어떠함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3 장 19 절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총만에 이르도록 총만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1 장 23 절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이라고 말한다. ...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총만이 된다. ...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총만이며, 이러한 총만이 합당한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총만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현은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영역 안에 있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8, 647-649 쪽, 메시지 79, 652, 654-65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개정판, 16 장*

### **6/14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히 4:14-15

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 히 2:17-18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18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 히 7:25-26

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26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롬 8:34**

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계 1:13**

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히 4:14). ... 주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그다음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가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히 2:17-18, 4:15). ...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셨고, 이제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히 9:24) 하늘들보다 더 높고,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 (엡 4:10).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9, 65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정관이 아닌 제사장으로 계시되신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1 장 13 절은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라고 말한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히 7:25-26, 롬 8:34).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 1 장 13 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의복이 보여 주듯이(출 28:33-35)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신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등잔대들을 돌보시는데, 특별히 등잔대들을 정돈하시어 이 등잔대들이 빛을 비추도록 돌보신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8 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3 절) 그러므로 1 장에서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을 돌보시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시고, 8 장에서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시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물론 5 장에서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행정관으로 계시되신다. 우주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아니라 행정관이시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시어 하늘들에 계시는 그분은 지금 제사장으로 사시고 일하시며 사역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우리는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많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궁핍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을 원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우리의 바람과는 매우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에 대해 여쭙는다면, 그분은 “너는 무엇이

네게 가장 좋은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포함한다.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가는 우리의 해석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해석에 속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새 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가 여러 해 동안 문제가 없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주님은 여러분의 차에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겨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와서 “... 그분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면 왜 제가 그 차를 사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저를 멈춰 세우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물론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아신다. 그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돌보심은 항상 긍정적이다.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을 뵈고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우리 중 몇몇은 그분께 “주 예수님, 저의 상황에 대해 당신께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훌륭하게 돌보고 계신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9, 655-6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9 장

6/15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2:6**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골 1:27**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롬 8:10**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고후 13:5**

5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골 3:1, 3-4**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

하늘에서의 사역은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 ‘승천’이라는 용어는 주님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신 때부터 하늘들에서 내려오시어 다시 오실 때 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 그분께서 하늘들에 계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얕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은 오늘 승천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은혜 시대 전체가 주님의 승천의 때이다. 주님은 하늘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부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늘날 그분은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롬 8:34) 우리 안에도 계신다(10 절). 이것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하늘들에 계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는 그러한 승천 안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승천 안에 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빌립보서 3 장 20 절은 우리의 국적, 즉 시민권이 하늘들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들이며, 따라서 모두 승천 안에 있다 (엡 2:6 하).(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8 장, 105, 1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하늘들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하늘들에서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동시에 운행되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대체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히 7:25). 그분은 하늘들에서와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오늘날 그분은 하늘들과 우리 안에서 언제나 동시에,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 ... 그리스도는 하늘들에서 일하고 계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歷史)이다. 온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광경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육체되심으로 하늘들에서 내려오셨고 그런 다음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승천 안에,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의 커다란 부분이다. 그분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과하셨으며, 그런 후에 부활에 이르셨다. 부활이신 그분은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단계들은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승천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며, 머무시고, 사역하시며, 섬기시고, 일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들의 영역’이라고 부른다. ... 우리의 존재 안에는 매우 비범한 무언가가 있다. 이 비범한 것은 바로 한 인격, 곧 승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러한 승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러한 움직임은 그분의 역사가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우리의 역사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둘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두 역사가 있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의 역사를 갖는 부부가 된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하나님 즉 삼일 하나님은 하나이고, 따라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갖는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하고(빌 1:21 상), 그리스도의 총만이며(엡 1:23) 그리스도의 배필의 지체들이자 일부분(5:25, 30)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러한 체현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이것이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이것이 그분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본 것으로 인해 우리는 내적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변화이다.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8 장, 107-108 쪽, 9 장, 122-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개정판, 16장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Week 17)**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6:7-1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29-30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Living and Operative Word of God Being Mixed with Faith in Those who Hear

Scripture: Heb. 4:2, 12-13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25

Supplemental Reading: None

Questions:

1. In Heb. 4:2, what was the "good news" announced to the children of Israel?
2. Why did the word heard by the children of Israel not profit them?
3. What does it mean for the word to be mixed together with faith in those who heard?
4. Describe the word of God being living, operative, and piercing,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 context.

**찬송: 132 (英) 보라 하늘 보좌 위에 (中:115)**

- 1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사-람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의 관 쓰셨네.
- 2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으신 예수-님은 몸-을 갖고 다-시 살아 승-천한 사람일세.
- 3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낮춰-지고 하-늘에서 예-수 안에 사-람은 높여졌네.
- 4 하-나님은 사-람 통해 자-신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보-좌 영광 얻었네.
- 5 영-광 얻은 그-는 이제 모-든 것 포함-한 영 예-수님의 인-격과 일 그-영 안에 다 있네.
- 6 그-가 영광 얻-을 때에 교회도 영광 얻-었네 이- 영광을 성-령 안에 모-든 지체 누리네.
- 7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사-람 예수 앉-았네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영-광의 관 쓰셨네.

**6/16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4:12, 16-20, 25-27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25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27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